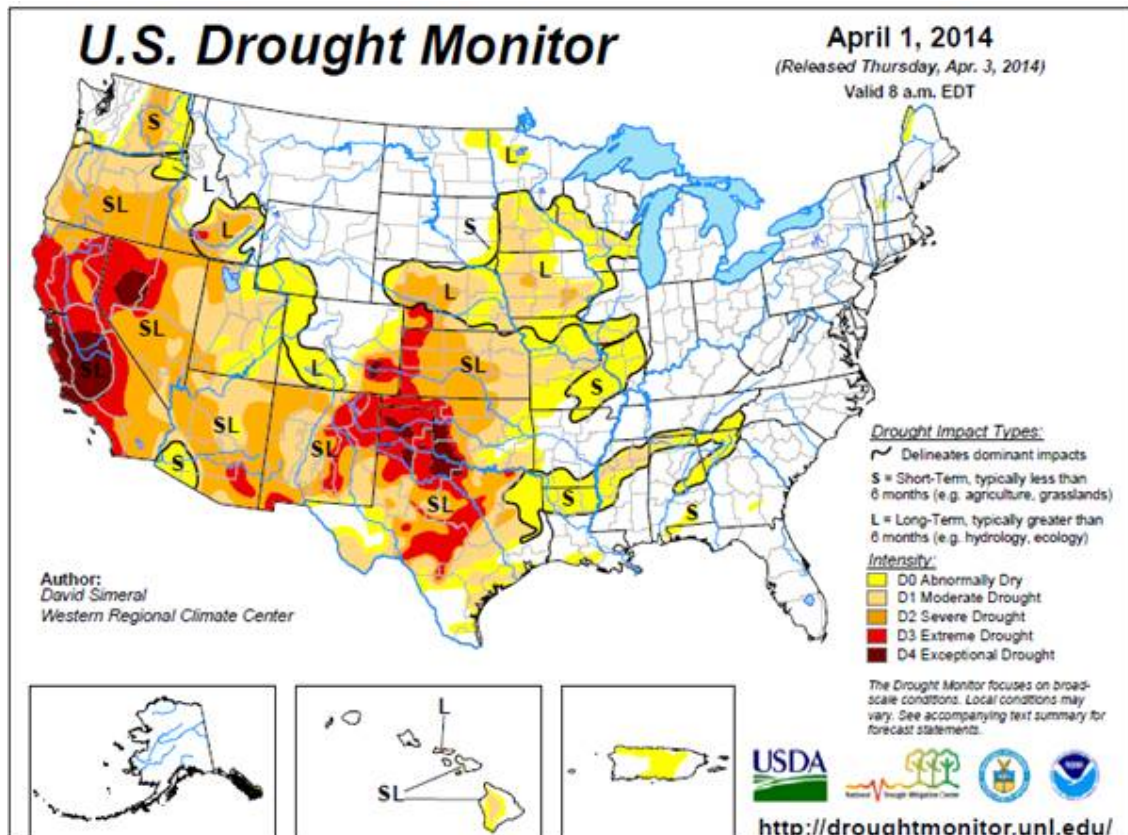


4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14)

□ 미국 기후 현황(03/30~04/05)



폭우가 내려 남부와 동부 콘벨트 지역의 가뭄이 해갈되었으며, 시즌 후반 나타난 눈보라가 북부 대평원과 중서부 상단 지역을 강타하였다. 미주리 계곡 및 오하이오 계곡 하류지역의 경우, 주간 총 강수량은 4 인치 혹은 그 이상이었으며, 저지대의 경우에는 홍수가 발생하였다. 더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다코다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서는 3 월 마지막 날 바람이 물고 온 눈으로 뒤덮였다. 중부 록키산맥과 중서부 상단지역의 경우 4 월 3~4 일경에 추가적으로 눈이 더 내렸다. 한편, 남부 지역에서는 며칠간 이어진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파종과 봄철 야외작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주말쯤에는 폭우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남부 대서양인근 연안 주를 제외한 남부지역의 야외작업을 위축시켰다. 일반적으로 거센 바람과 온난함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는 가을밀이 자라는 남부 대평원 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인 방목장과 목초지에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러나 남부 대평원 지역의 경우 4 월 6 일 일요일에 내린 산발적이지만 유익한 소나기가 내렸다. 남서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시즌

후반 강수량이 급증하기도 하였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내린 강우는 여름 가뭄 해갈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으며, 관개 요구에 대한 수요 감소와 비를 필요로 하는 작물과 목초지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등 단기적 이익은 일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 현황 요약(03/31~04/06)

남부 대평원, 델타지역, 남동부 지역에는 평균 이상의 기온으로 인해 야외작업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북부 대평원 지역과 다코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0°F 이상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 등으로 확대되어 한 주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강수량은 4인치 이상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 가을밀

4월 6일, 미국 전체 겨울밀의 35%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2013년 11월 24일경에 관측된 62% 수준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남부 대평원 지역에서 발생한 중요한 토양 수분 부족현상은 겨울 휴면기간 동안 작물의 생육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지역에서 가을밀의 48%, 61%가 매우 나쁨/나쁨으로 보고되었다.

■ 쌀

주말 기준, 금년 쌀 파종율은 15%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느리고, 5년 평균 대비 4%p 낮은 수준이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파종이 진행 중이나 5년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상황이지만, 텍사스 지역의 경우 5년 평균 대비 1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자들이 관개 급수를 기다리는 동안 파종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03/30~04/05)

■ 유럽: 따뜻한 날씨가 서부와 중부 유럽에 돌아왔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비가 내려 작물의 생산 전망을 증진시켰다. 지난 주 혹한의 날씨가 지나간 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기온이 평균 3~10°C 수준을 유지하여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농민들이 지난 주 혹한으로 인해 영향을 입은 겨울 곡물과 유채에 대한 피해를 가늠할 수 있었다. 따뜻한 날씨는 스페인과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 적당한 수준의 비를 동반(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하였을 뿐 아니라, 겨울 곡물의 발아의 초기 단계의 연계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향상시켜주었고 여름작물의 관개에 필요한 용수의 저장량을 증대시켰다. 이탈리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비(5~25mm)가 내려 가을밀에 필요한 토양 수분량을 높였고 여름철 관개에 필요한 저장수준을 증가시켰다. 한편, 프랑스 북부, 독일, 폴란드, 발칸반도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소작물의 파종과 겨울 곡물의 생장이 가속화되는 시기여서 계절 야외작업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독일지역에서 토양 수분은 평년보다 건조한 겨울과 이른 봄 날씨로 인해 밀과 유채에 필요한 만큼 충족되지 못했다. 주요 중부 유럽지역의 밀과 유채 재배 지역에서는 작물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구소련(서부): 더욱 추운 날씨가 이 지역에 형성되었으며, 달갑지 않은 건조함도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지속되었다. 주 초에 발생한 강력한 한랭전선으로 인해 기온이 평년보

다 5°C정도 하락하였으며, 밤시간 대 기온은 중부와 동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부와 북부 코카서스 지역의 경우, 영하 7°C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가장 추운 지역의 경우, 가을밀은 발아초기 결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영하 9°C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성장단계가 더 진행 중인 겨울 곡물들은 중-후반의 결합상태이며, 영하 4°C 이하에서는 냉해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겨울과 초봄에 형성된 평년보다 더욱 건조한 날씨로 인해 더욱 많은 수분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난 주 총 강수량은(5mm 미만) 겨울 작물 생산량을 거의 향상시킬 수 없는 양이었다. 단기적으로 건조한 날씨는 벨라루스와 몰도바 지역의 소 작물들에 필요한 수분 보존량을 역시 감소시켰다. 한편, 광범위한 지역에 내린 비와 눈(5~25mm)으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 동아시아: 중국 대다수의 겨울 작물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다. 남부지역의 봄철 재배 작물에 대한 강수량은 증가되었다. 건조한 날씨는 중국 북부 대평원 지역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생 시점이 다가온 Hebei와 Shandong 지역, Henan, Anhui, Jiangsu 지역은 개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을밀에 사용되어야 할 추가적인 관개가 증가되고 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평년보다 높은 6°C정도) 수분 수요의 증가와 성장단계의 가속화를 야기하였다.
- 호주: 지난 주 내린 비의 여파로 산발적인 소나기(10-25 mm, 국지적으로는 50 mm)가 남부 Queensland와 북부 New South Wales에 내렸다. 비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어, 강수로 인해 가을밀의 파종에 앞서 표토층의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나기가 내린 탓에 면화와 수수의 수확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작물의 품질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건조한 날씨가 팽배해짐에 따라 야외 발작업은 회복 기간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역의 경우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1~3°C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 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인 것으로 관측되었다.
- 아르헨티나: 자주 내린 폭우로 인해 중부 아르헨티나의 주요 생산지역에서 여름작물의 성숙에 필요한 과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가장 높은 강수량을 기록한 곳은(100mm 초과) 동부 La Pampa에서 중부 Buenos Aires에 집중되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비로 인해 해바라기와 초기 성숙된 옥수수 수확 뿐 아니라, 병해충 살포와 같은 야외작업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Cordoba, Santa Fe, Entre Rio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100 mm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부 Cordoba에서 북부 Entre Rios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았고(낮 최고 기온은 20°C 중반), 남부지역의 경우는 30°C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밤 시간은 남부 지역인 중부 Buenos Aires의 경우에는 5°C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2~3°C 수준이었으며, 주간 총 강수량은 25~50mm으로 관측되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4월 3일 해바라기 수확은 현재까지 88% 진행되었으나, 전년 동기에는 94%가 이루어졌었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2기작인 옥수수(safrinha)와 새롭게 파종된 가을밀에 필요한 수분은 증가되었지만 마지막 단계에 있는 대두의 수확은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다. 지난 주 초 강수량은 매우 가변적이었으며, Rio Grande에서 Sao Paulo와 Mato Grosso do Sul 지역의 강수량은 10~100mm를 기록하였다. 주 초반에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오히려 평균적으로 2~3°C가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 달하였다. 브라질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두의 경우 비가 내려 추가적인 수분이 보충되어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로 인한 영향보다는 주말에 형성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대부분의 작물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즌 후반에 내린 소나기는 사프리카, 옥수수, 면화의 생육 조건에 선호되는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사탕수수, 커피, 만감류에도 수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중서부와 북동부 내륙, 남동부 지역(동부 Mato Grosso에서 서부 Bahia, Rio de Janeiro)과 같은 주요 생산지역의 총 강수량은 25~100mm를 기록하였으며,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평균 1~2°C를 나타냈다(낮 최고기온은 30°C 초·중반 임). 계절에 맞지 않는 건조한 날씨는 북동부 연안 사탕수수와 코코아 재배 지역에 팽배하였다.